

강화군,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이 확 바뀐다 원도심이 미래도시로 '비상'



군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역량강화와 민·관 상호협력으로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

'왕의 길을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군민들과 함께 많은 사업성과의 열매를 맺은 강화군은 올해도 도시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더 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군은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사업비 26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어울림센터, 달빛공원, 노후주택개선, 마을카페, 스마트보안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며,

'강화여중~갑룡초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신문·새시장(22년 12월

입주)과 온수지구(23년 12월 입주)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지역 내 젊은 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수리 더블어마을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의 거리가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고, 수십 년간 방치된 동광직물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리모델링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으로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도시재생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거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공제 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효과 누리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 6,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 :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후 납부안내 ▶ 인터넷, 은행CD/ATM 납부, 가상계좌, ARS납부(1599-7200, 1661-7200)

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3) [1]

- 최백하 기자



최고의 힐링숲 관광시설로 조성 강화군 화개정원 활성화 계획 수립

화개정원 독창적인 공간구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강화군이 지난 14일 수도권 최고의 힐링숲 관광시설인 화개정원의 준공을 앞두고 '화개정원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교동도 화개산 213,251㎡에 사업비 313억원(민자 제외)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대형 공영주차장 ▲모노레일(민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개정원 활성화 계획'에는 교동도의 역사·문화 자원 및 해변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계절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해 계절별로 인생 전체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전망대에서는 한강하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북녘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모노레일을 통해 화개정원에서 전망대까지 2km의 궤도 열차로 이동하며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화개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르고 독창적인 공간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정원관리사업소_연구용역보고회

2,7일에 열리는 강화 5일장은 농민들이 직접 키운 풍성한 농작물 강화군, 명절맞아 전통시장 상인 격려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당부

유천호 군수는 22일 명절을 앞두고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과 전통상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직접 명절 상품을 구매하며, 추석맞이 제수용품 수급상황과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해 듣는 등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와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생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 군수는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1층에는 풍물장, 회센터가 있어 가격 흥정하는 재미와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고, 2층에는 식당이 있어 강화 여행길에 배고픔을 잊게 해 줄 맛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며, 주차환경도 내부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1** - 최백하 기자



유천호 군수 - 전통시장 방문

Photo NEWS
현·장·행·정



강화속노랑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현장확인



유천호 군수 - 전통 풍물시장 방문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및 절차 이행 촉구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국 최고로 대우하라

강화군 농업인단체(대표 이봉영)는 공익수당을 환영하며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 일동은 25일 강화농업인회관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시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족쇄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의 농어업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공론화 과정없는 월 5만 원의 공익수당 결정은 농어업인을 무시한 졸속 행정에 불과하며, 인천의 모든 농어민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시의 예산 증가 규모와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지, 강화군에 지급하는 시비보조금 규모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 지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물으며, 강화군 홀대론과 함께 경기도 환원 계획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회장 이봉영),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주혁돈),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은숙),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참여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봉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조례의 절차에 의해 군·구 및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의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군민 사유재산권 보장 및 불편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550만평 규제 완화 2018년 완화해제 이후 두 번째 규모

강화군이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라 강화군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이 규제가 완화된다.

강화읍 대산리, 양사면 인화리, 송해면 송퇴리, 교동면 난정리 4개 구역 229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외 22개 구역 1,586만㎡는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된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는 군부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군은 규제완화로 민통선 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되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과 신속한 사업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2018년에 170만㎡, 2020년에는 27만㎡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도시개발과 - 통제보호구역 철책선

강화군, 조직배양기술로 속노랑고구마 고급화에 나서

조직배양묘 공급 '잔걱임', 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업기술센터 - 조직배양실 현장확인

강화군이 조직배양묘 공급으로 지역 특산물인 '강화속노랑고구마' 고급화·명품화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고구마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에서 떼어내서 배양·증식한 '조직배양묘'를 오는 2월 4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받은 육묘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약 3만여 본이 공급되며, 내년부터는 일반농가에서 씨고구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묘하우스에서 증식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8일 조직배양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미래농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직배양 기술 축적을 강조했다.

'조직배양묘'는 '무병묘'라고도 불리며 일반묘 대비 20~30% 수량 증수와 고구마의 모양, 과피색 등의 품질이 균일해 상품성이 좋아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0년도에 조직배양실(124㎡), 순화온실(330㎡)을 구축하고, 시범생산에 나서 '속노랑고구마 조직배양 플러그묘' 7,500주를 지난해 공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의 속노랑고구마 생산을 위해 최소 3년 마다 농가가 씨고구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묘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고 품질의 속노랑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속노랑고구마는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서해 해풍을 맞으며 풍부한 일조량으로 자라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당도가 높고 밤고구마와 달리 찌서 먹어도 목이 메이지 않고 속이 편안하다. **이**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농업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

21개 사업, 22억여 원 투입 농업 신기술 보급 / 내달 4일까지 접수

강화군이 2022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군은 기술보급사업에 22억여 원을 투입해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나선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상담소(교동, 삼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사업', '강화속노랑고구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소득작목 분야사업으로 '강화섬포도 생산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영농기술보급에 나서고 ▲첨단농업 채소 분야사업으로 '시설원에 스마트 영농 모델개발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된다. 특히, '강화섬포도 생산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으로 포도 비가림, 무인방제, 운송레일, 자동관비 등 기본 시설을 일괄로 지원해 시설 농업의 규모화·자동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설을 온전히 갖추려면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군 관계자는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영농 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벽하 기자

문의 : ☎ 032-930-4150, 4160, 4180 /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농업기술센터 - 신기술 보급

Photo NEWS 내 고장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농업기술센터 - 신기술 보급(드론 방제)



농업기술센터 - 작업대



교동면 - 노인회 대청소



자원봉사센터 - 칼같이봉사

강화군 배준서, 염관우 수상

‘대한태권도협회(KTA) 선정 2021년 올해의 선수·지도자’

강화군(군수 유천호) 소속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배준서와 감독 염관우가 지난 18일 KTA(대한태권도협회, 이하 협회)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배준서는 현재 54kg 편급 겨루기 최강자로 2019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평가대회 최종 1위를 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태권도 역사를 이어갈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염관우감독 또한 배준서 선수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한 꺾여원 선수 등 걸출한 선수를 배출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선수 및 감독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태권도 역사에 강화군이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소감으로 배준서 선수는 “강화군에서 항상 관심과 배려로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주어



체육팀 - 강화군 직장운동경기부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염관우 감독은 “좋은 성적은 군민들께서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다. 계속해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농업협동조합,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이 성금 3,000만 원 기탁

강화군은 강화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한훈),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석현), 서강화농업협동조합(조합장 황의환)은 지난 11일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한훈 조합장은 “한파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강화군 각 농업협동조합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설 명절 음식 나눔’ 성료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동수)는 지난 25일 설 명절을 맞아 읍·면 자원봉사 상담가와 함께 음식 꾸러미를 소외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독거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자원봉사 상담가는 명절 대표 음식인 가래떡, 사골곰탕, 꽃감, 쌀국수 등을 포함해 직접 만든 전, 잡채, 순두부로 음식 꾸러미를 제작했다.

이동수 센터장은 “어르신들께서 정성들여 준비한 명절 음식 꾸러미를 받고 많은 위로와 행복을 느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자원봉사센터 - 음식꾸러미나눔

이웃과 훈훈한 정&사랑을 함께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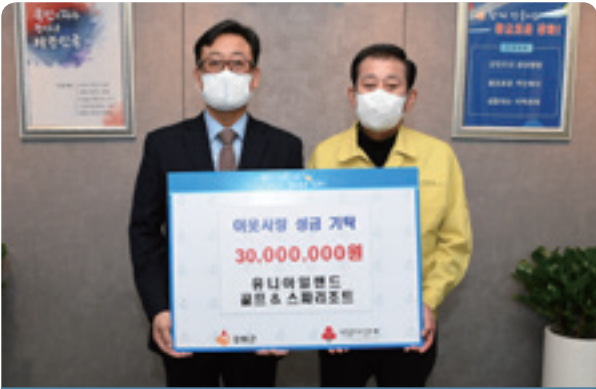
교동면 - 이장단 성금



하점면 - 최영희 성금기탁



선원면 - 새마을남녀지도자 설맞이 나눔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양사면 - 교산교회 성금기탁



내가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삼산면 -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



교동면_주민자치위원회 성금 전달



길상면 - 부녀회 떡국 나눔



불은면 - 협의체 호호꾸러미



길상면 - 이웃돕기



하점면 - 협의체 설맞이 위문품



화도면 - 농가주부모임 이웃돕기 온정나눔



화도면 - 바르게살기위원회이웃기탁성금



불은면 - 부녀회 나눔



시설관리공단 - 사랑의쌀 나눔행사 사진



화도면 - 농촌지도자회 이웃사랑성금기탁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본격 추진


19일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인천시는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신속추진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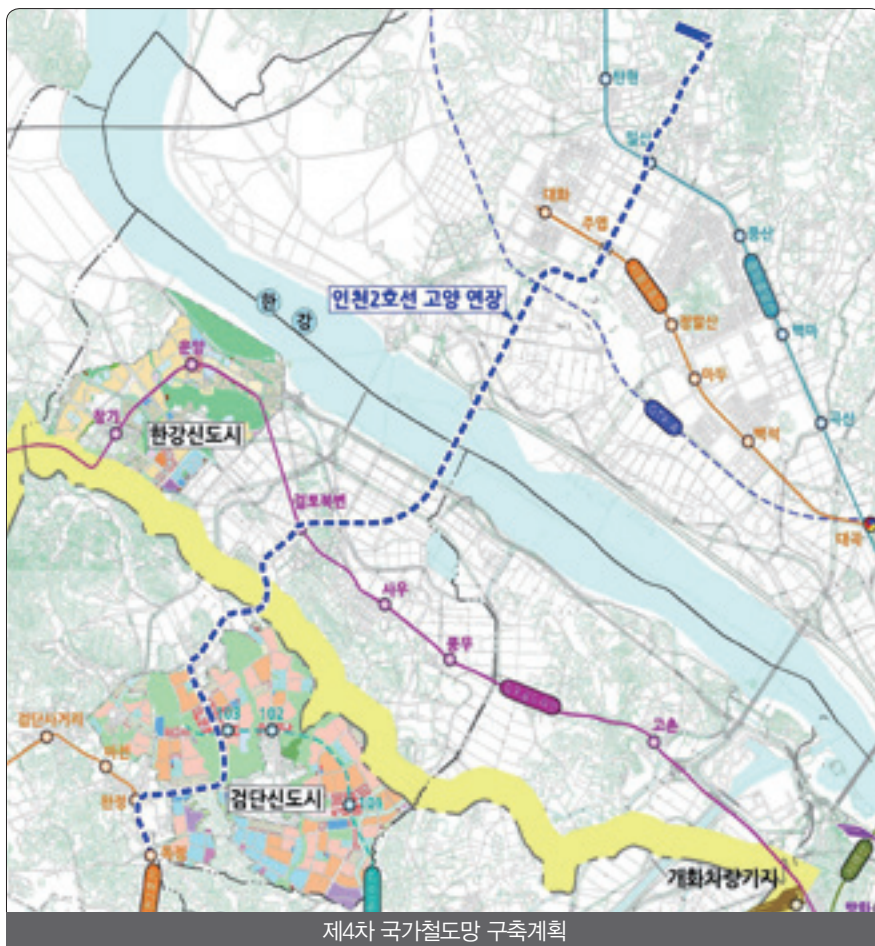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7월)」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19일(수) 인천시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과업추진 방안과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제성, 정책성 분석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 강구 및 평가요소 발굴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2호선 독정역부터 불로지구, 걸포북변역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본 노선이 개통되면 서부 수도권의 교통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GTX-A와 환승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국토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발표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에 합의한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는 금번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최적대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주형 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인천내항 1·8부두 재생사업 '속도 낸다'

- 박남춘 시장, 해수부장관·IPA 사장과 내항 1·8부두 사업 현장방문 -
- 재생사업 추진 및 시민우선개방 위해 이달 중 3자 협약 추진키로 -

인천내항 1·8부두에 대한 조속한 항만재생사업·시민우선개방을 위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IPA)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최준옥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2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현장 확인을 위해 인천내항 1·8부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세 기관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및 시민우선개방의 추진의지를 담은 기본업무협약을 이르면 이달 중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한 '19. 1월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20. 9월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작년 8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했다.

현재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정부 측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상 및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시민들이 인천내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 착공 이전까지 인천내항 1·8부두를 공원·광장·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민우선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9월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개방을 완료했으며, 기 개방된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그간 철책 등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바다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이를 위한 3자 협약을 조만간 추진하는 만큼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토지이용계획구상



IPA조감도

정하영 시장, “행정은 최후의 보루… 비상한 각오로 업무 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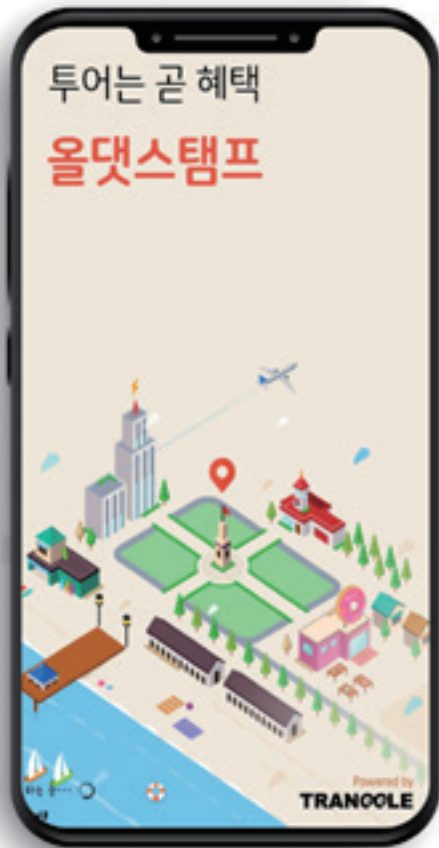
정하영 김포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 연휴 전까지 비상상황이라는 특별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내부 행정망에 올린 ‘당부의 말씀’에서 “최근 학교와 어린이집, 회사와 종교시설, 행정기관까지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행정은 주민생활의 근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제설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안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각 부서별 새해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كرون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1** - 권주형 기자



2022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시



올댓스탬프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며, 기존 관광지 외 ‘문수산 산림욕장’을 추가하여 더 많은 관광 명소를 알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작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1.21 (금) 현재 4,338명이 참여했으며, 이용자들의 체험 후기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동안 몰랐던 김포의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등의 좋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참여 방법은 휴대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올댓스탬프’를 검색해 어플을 설치한 후, 해당 관광지에 도착하여 어플을 실행하면 스탬프를 획득 하게 된다. 방문지의 정보는 물

론 가장 가까운 관광지를 순서대로 보여 주고 길안내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스탬프를 획득 할 때마다 참여 소감과 사진 등을 남기고 그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신청하면 소정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다. (5개소-5천 원, 10개소-1만 원, 15개소-2만 원권 / 단계별 총3회 3만5천 원 지급 ⇒5대 편의점, 교보문고, CGV 등에서 사용가능)

인증장소는 총 15개소로 김포장릉, 김포아트빌리지, 김포독립운동 기념관, 우저서원, 통진향교, 김포함상공원, 덕포진, 김포아라마리나,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라베니체,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태산패밀리파크, 김포국제조각공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문수산산림욕장이다.

서비스 개발 및 운영회사인 (주)비글과 김포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김포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1** - 권주형 기자

김포시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세한 정보와 스탬프 인증 체험을 제공하는 “2022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1.24(월)개시한다. 2022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목표 인원 10,000명 이상으로

Photo NEWS 현·장·행·정



김포시 제설작업



국지도84호선



공공마을버스 협약식

기고

焚香禮분향례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여름날엔 뜨거운 아침밥이 싫고
 엄동엔 머리 감기 손시려 싫다
 봄가을 자잘한 변덕에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 꼬리는 잡지 말라하는
 春氷춘빙도 건너지 말라하는
 말라하는데.....
 이판사판 세상의 궂은일
 붓대 잡아 버터낸다
 壬寅年임인년 焚香禮분향례
 孔夫子공부자에게 鞠躬四拜국궁사배

기저질환자들은 날씨의 변덕이 가장 큰 禍因화인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내지는 독감, 이러한 질병들에 앞서 날씨에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날씨의 추이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영하 10도의 날씨라면 病根병근이 깊은 사람들은, 필자의 경우 역시 갑절의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해서 杜門不出두문불출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문 밖을 열썬 못하고 이불 속에 뽕뽕 갇히는 갓난아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새해 엄동에 임인년(2022년 1월 3일 음력으론 辛丑年신축년 선달 초하루) 첫 분향례가 봉행되었습니다. 강화향교의 시무식이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儒林유림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이 지극하신 분들은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잊지 않고 대성전을 찾고 계십니다.

서울 성균관에서는 ‘朔望祭식망제’를 지냅니다. 이를테면 음력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보름에 두 번 분향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焚香禮분향례’는 향을 태우는 의식입니다.

『禮記예기』「郊特牲교특생」에 “周주나라 사람들은 냄새를 崇尚상하여 蕭소(썩)과 黍稷서직(곡물)을 합하여 불을 태운다.”

(『유교대사전』)

이에 유래해서, 후대에는 향을 피워 신을 降神강신케 하는 의례인 것입니다. 神신은 당연히 孔夫子공부자의 학문정신이겠습니다. 분향례 때마다 대성전 프락에서 ‘鞠躬四拜국궁사배’를 기꺼이 즐깁니다. 한 달에 한 번 ‘萬歲師表만세사표’ 즉 영원한 인류의 큰 스승이신 공부자를 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학습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부자의 제자 曾子증자 자신은 하루에 세 가

지 성찰(『論語』「學而학이」 4)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일을 하면서 최선(忠충)을 다했는가?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귀면서 믿음(信賴신뢰)을 주었는가?

세 번째는 스승님한테 배운 바를 제대로 이해(習습)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이었습니다.

필자 역시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참례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락의 가르침을 “庭訓정훈”, “庭聞정문”이라 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집안의 뜰에서 자식에게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대성전 프락이 공부자의 집이라 생각하면 필자도 공부자의 아들인 伯魚백어와 다름없는 아들이요, 학생일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됩니다. 『論語』「季氏계씨」 13편에는 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부자께서는 마당을 지나는 아들 伯魚백어 鯉리에게 묻습니다. “學詩乎학시호; 시를 공부하였느냐?” “學禮乎학례호; 예를 배웠느냐?”입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아갈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鞠躬四拜국궁사배 하는 동안이라도 피부로 느끼고 싶어합니다.

學於詩학어시; 시를 배우고
學於禮학어례; 예를 공부하고
時習日新시습일신; 늘 익혀서 날마다 새롭게
以行躬直이행궁직; 바르게 行道행도 합니다

2022년 1월 「유교신문」에도 “博文約禮박문약례”라는 새해 휘호가 게재되었습니다.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에 밝고 언행을 바로 하며 예절을 잘 지킨다.”라 해석해 놓았습니다.

“博文約禮박문약례”는 (『論語논어』「雍也옹야」 27)의 문구를 축약해 표현한 말입니다. “文”이란 문학·역사·철학·예술 등 인문학의 총괄적인 양식을 뜻합니다. 광범위하게 많은 지식을 터득하되, 일관된 道도로써 요약 돼야 하는데, 그것이 곧, 禮儀凡節예의범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은 누군가의 강압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계층간의 조화를, 상하간의 화락 어울림을 중시합니다. 하여 “禮례”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공동체를 꾸미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조하며 역사와 문화를 발전케 하는 생활철학인 것입니다.

壬寅年임인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규범이 잘 지켜지는 禮法예법의 나라. 東方禮儀之國동방예의지국이길 분향례를 통해 기원해 봅니다. 〰

기고

미래교육이 국가경쟁력이다



이 대 형
인천교총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혁명시대의 미래교육은 국가경쟁력이다. 오늘의 교육은 오랜 과거의 유산이고, 미래교육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물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교학상장(敎學相長)하면서 창조적 대안을 찾아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선진국이라는 멋진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교육은 꿈과 끼를 발산하는 아이들만 행복한 일이 아니라, 선생님도, 학부모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이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모든 아이들이 삶의 주도성을 확립하고, 국가와 학교 등이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리정연하게 일반화된 명제의 체계 이론중심이었던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주도성을 길러내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과 친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시민성을 실천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학교와 대학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교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서는 시민적 가치와 공존의 감수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포용하는 보편적 학습과 돌봄을 위한 학습복지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감소와 학생 쏠림, 공백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의 분권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미래 기초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수준도 높여 가면서, 교육의 인간화, 개별화, 유연화, 자율화, 전문화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첫째, 초·중·고 코딩교육을 통한 미래형 인간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래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교육의 본질은 간과한 채, 테크놀로지의 도입만이 강조되었던 면이 있다. 근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교 구조와 제도의 총체적인 변화와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전공을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맞이한 디지털 혁명 세상에서는 단일 전공 교육이 아닌, 융합전공 교육시대라는 의미이다. 창의성, 적응력, 소통능력, 자기학습능력, 열린 생각 등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적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은, 무한한 상상력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재능을 발굴해 주는 교육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람다운 사람이 인재의 기본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바른 인성이 밑바탕이 된 사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된다고는 하지만 인성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면 앞선 기술들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인문학을 기본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한다.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전공이 융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인간교육을 해야 한다. 인성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인 창의성, 적응력, 소통능력, 자기학습능력, 열린 생각 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간다면 인공지능과의 공존시대에서 주도자가 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 결국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미래에는 더욱 인간다운 인간의 중요도와 가치가 커질 것이다.

미래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의 역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사가 할 일은 ①교과서 틀 깨기다. 빅데이터 정보시대에 교과서 중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유되면서 신기술개발, 신소재개발, 신상품 개발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창출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 정보는 이미 지난 간 정보이며, 죽은 정보나 마찬가지이다. 과감히 교과서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②학교 교실의 틀 깨기다. 무크(MOOC)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장으로 확산되었다. 한국도 2015년부터 K-MOOC를 통해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BL 학습은 교실의 틀을 깨고, 학교의 틀을 깨고, 실생활 환경 전체를 교실로 사용하는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늘 깨어있어 한 발 앞서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③암기주입, 평가교육의 틀 깨기다. 이론이나 공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교육시대는 끝났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활화되고 있는 시대에, 반복학습으로 얻은 정보만으로 미래인재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사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의 정보교육으로 미래인재 교육에 대비하지 못하는 교사는 강단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사가 교수법의 틀을 깨지 못하면 미래교육은 불가능하다. 정해진 이론과 공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여 줄 세우는 안일한 교육방식의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창조하는 인류혁명이다. 학교당국이나 교사, 학부모 학생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교육혁명시대의 발 빠른 미래교육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1**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75억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2022년에도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75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오는 1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75억원의 용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 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접수기간 :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최백하 기자

풍무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다같이 코딩교실-아이편> 운영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2022년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생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다같이 코딩교실-아이편」 강의를 운영한다.

총 4회차로 구성된 이번 강의는 그림책을 통해 코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컴퓨터 없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1차시에는 코딩의 기본 구성인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2차시에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3차시와 4차시에는 실제로 변수를 사용해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강의 접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예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5명을 모집한다.

- 최백하 기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풍무도서관 : 홈페이지(<http://lib.gimpo.go.kr>)
전화(☎031-5186-4681)로 문의

2022년도 (재)강화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장학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2022. 1. 26.(수) ~ 2. 16.(수)
※ 우편접수는 2022. 2. 16.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강화군장학회
 (강화읍 강화대로 401 향군회관 1층)

선발인원

140명 이내(고등학교생 70, 대학생 70)

지원자격

강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강화군청 및 강화군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재)강화군장학회 032)932-2580
 032)935-9657

풍무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다같이 코딩교실-아이편

<집에서 하는 Home Coding>

운영기간 : 22년 2월 15일~24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총 4회차)
 운영방법 : 비대면 온라인 zoom
신청 후 무인발행 시 이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집기간 : 22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 마감시
 모집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모집대상 : 예비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15명
 문의 : 031-5186-4864

컴퓨터 없이 놀이로
 코딩 이해하기
 코딩이 대체 뭐야?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도 농특산물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중의 옥외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20인 이하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인사하는 행위, 일대일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http://www.ic.nec.go.kr> | ☎ 032)934-2172 | FAX 0505-058-2427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삼성인쇄광고기획)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